

위령미사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위한 축제

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 성당 자체 묘지에서 위령미사 봉헌, 죽은 이들 위한 기도로 하느님 나라 묵상



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 성당 자체 묘지에서 김순진, 주국돈 신부가 신자들과 함께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김 신부는 풍요로운 삶과 성실한 신앙을 위해 묘지에 자주 방문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펜실베이니아】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 성당(주임 김순진 요셉 신부)은 지난 4일 본당 자체 묘지인 필라델피아 소재 포레스트 힐 공원 묘지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했다. 이 미사엔 김순진 신부와 주국돈 보좌 신부가 공동 집전했고 40여 명의 신자가 참석했다.

늦가을, 잿빛 하늘 아래 화려한 옷을 입은 낙엽이 바람을 업고 춤추듯 내려와 잠든 영혼 곁에 머물고 묘비마다 세상에 남긴 그들의 삶의 흔적과 마주치며 언젠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 올

죽음을 깊이 묵상했다. 모두가 자갈밭 같은 이민 생활을 맨 발로 전쟁을 치루듯 치열하게 싸우고 떠난 영혼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를 올렸다. 작년 11월 위령미사를 봉헌한 후 1년 동안 8명의 신자가 대부분 노환으로 선종했으며 한국에서 천주교 신앙을 가진 부모 선종은 2명, 평균 나이는 82세로 본당과 관련된 10명을 하늘로 배웅했다.

김 신부는 강론에서 “1년에 한 번 우리 묘지에서 봉헌하는 위령미사가 우리의 축제가 된다면 우리도 훗날 여기에 묻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

람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희망을 갖게 될텐데 오늘 날씨가 좋아 모두 다른 곳에 가 버려 참석자가 적었다”며 못내 아쉬워 했다. 또 “기도의 선물을 받는 이가 부럽다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하는데 받을 생각만 하고 베풀 생각을 안 한다.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곳을 자주 방문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 질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삶, 죽음 다음의 삶을 생각할 때 살아 있는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죽음 앞에 교만한 사람은 없다.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 나라를 묵상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며 더 성실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가르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연도는 애통함만 남기고 먼저 떠난 가족 친지들의 기억을 되새기며 삶의 여정에서 허물과 나약함으로 쪼그라진 모습을 정갈하게 다듬어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쳤다. 미사 후 각자 흩어져 묘비 아래 쌓인 낙엽을 깨끗이 청소하고 평소 고인이 좋아 했던 꽃을 바치며 영혼들을 위로했다.

김 신부는 내년에 성당 묘지에서 봉헌할 위령미사는 연령회가 주축이 되어 레지오 전단원 활동으로 후보에 지속적으로 알려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경숙 명예기자